

개관 87주년



14일~11월 13일...박태규 화백 시민 제작 순간판 2점 상판식 장 쾃 고다르 감독 스페셜, 스피버그 'E.T' 등 17편 상영 유운성·이나라와 시네마토크...아마도이자람밴드 등 공연도

뭐가 달라도 다르다, 기대하시라

광주극장이 87돌을 맞이해 다채로운 영화와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이달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관 87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17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상영에 앞서 첫날 개막행사로 오후 7시께 20여명의 시민들이 한달 간 작업한 19편의 영화가 담긴 순간판 1점과 마지막 관람객이 박태규 화백의 순간판 2점 등을 상판식에 올린다. 같은날 오후 7시 30분에는 권철 감독의 뮤직다큐

'버터네고 존재하기'가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제 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 경쟁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버터네고 존재하기'는 여덟명의 뮤지션이 광주 극장과 영화에 대해 말하고 노래한다. 상영 후에는 권철 감독과 최고는 싱어송라이터, 박태규 화백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이어간다. 이번 영화제에서 광주극장이 주목한 섹션은 얼마 전 타계한 장 쾃 고다르 감독 스페셜작이다. 장 쾃 감독은 현대 영화언어의 발전에 큰 공로를 남겼으며 영화의 미학적, 정치적 효과의 경계를 넓히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극장은 '여자는 여자다', '비브르 사 바', '경멸', '알파빌', '남성 여성',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마리아에게 경배를' 등 7편을 상영하며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및 공간지기가 추천하는 영화를 선보이는 '광주극장 이웃사촌' 섹션도 눈길을 끈다. 20일에는 빵집 '빵과 장

미'가 선정된 영화 마리아 투자니 감독의 '아담'과 독립시절 '소년의 서'가 추천하는 소피 데라스페 감독의 '안티고네'가 상영되고 25일에는 창단 40주년을 맞이한 '놀이때 신명'의 추천 영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선보여진다. 상영 후에는 영화 추천에 나선 정찬일 대표와 단원, 임인자 독립기획자와 황지은 작가, 서수민 대표, 임술이씨 토크가 이어진다. 영화제가 아니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무성영화 상영도 눈길을 끈다.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과 함께 무성 영화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인 동시에 영화감독이자 제작자로 이름을 떨친 해럴드 로이드의 작품 '스피드'가 상영된다. 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미지와 의 조우'와 개봉 40주년을 맞이한 'E.T'가 상영되며 마그리트 뒤라스 감독의 '인디아 송', 올해 타계한 아오야마 신지 감독의 '유레카', 2021 베를린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르 코베리제 감독의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이 분다' 등 6편도 함께한다. 영화 전문가와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다. '경멸'(11월 5일 오후 5시)을 관람 후 이나라 이미지 문화 연구자와 시네마토크를 나누며 '할 수 있는자가 구하라 인생'(11월 12일 오후 3시)을 감상하고 유운성 영화평론가와 대화가 펼쳐진다. 또 15일(오후 4시-6시)에는 관객들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10월의 크리스마스 만찬사진관도 운영된다. 이달 마지막 주 주말에는 개막작 '존재하고 버터네기' 출연진이 참여하는 공연이 열린다. 29일에는 영화의 집에서 김일두, 정우, 곽푸른하늘, 최고은&주소영의 공연이, 30일에는 아마도이자람밴드와 고상지&이지원, 불나방스타포세지클럽의 공연이 광주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티켓 가격은 29일 2만원, 30일 3만원이다. 관람료는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아마도이자람밴드'



'버터네고 존재하기'



'E.T'



'여자는 여자다'

해바라기 천개의 씨앗을 품은 꽃



'자연 속으로-가을' '자연 속으로-겨울'

해바라기의 꽃말은 일편단심, 사랑, 희망 등이다. 서양화가 박유자 작가가 오랫동안 해바라기 작업에 매진한 이유는 그림을 그리며 언제나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희망과 사랑의 정서가 관객들에게 계도 전해지길 바라서다. 박유자 작가 개인전이 오는 23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광주시 북구 설죽로 477)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해바라기-천개의 씨앗을 품은 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40여점을 선보인다. 동일 소재로 작업을 이어갈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언제나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엔 선보이는 해바라기 작품은 펜으로 그린 드로잉 작업과 화면 바탕에 얇게 깔린 아크릴, 두툼한 유화 타치가 어우러졌다. 또 활짝 핀 해바라기 뿐 아니라, 희로애락이 담긴 인생을 표현하듯 곳곳이 피어 있는 자태와

더불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담았다. 화면에 등장하는 해바라기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존의 회색빛 바탕 대신 연보랏빛을 적극 활용한 것도 신작의 변화된 모습이다. 여름 풍경을 그리다 '우연히' 보라색 물감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기존에 무채색을 주로 쓰던 데서 벗어나 최근 작업에서는 다양한 색채 실험도 해보는 중이다. 또 작품에 새롭게 등장시킨 '길'은 그의 마음의 행로를 따라간 장치다. 한 곳에 정착해 있기 보다는 풍경 속으로, 삶속으로 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커다란 은행나무가 화면에 등장하는 '자연속으로' 시리즈는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코로나 19로 작업실이 머물 시간이 많아진 그는 150호 캔

박유자 개인전 23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박유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김 기자는 30여년 동안 촬영한 새와 자연, 사람 사진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14일 오후 4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식이 조금씩 쌓이자 새들과의 동행은 더욱 즐거웠다. 참새, 멧비둘기, 따오기, 황새, 두루미, 장끼, 도요 등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 더불어 자연의 소중함과 위대함도 느꼈다. 그는 희귀한 새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갔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새들의 일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장시간 머물며 숨죽여 사진을 찍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새들의 생태 현장을 집요하게 지키면서 진기하고 장엄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내기도 했다. 그의 사진에는 다채로운 스토리가 있다. 제 몸보다 두배 이상 큰 빠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서로 부리를 부비며 애정을 표현하는 백로 부부, 송어를 사냥하는 물수리의 날쌔 모습,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어미가 새끼에게 주려는 먹이를 다른 새가 잡아채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은 인상적이다. 김 기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과 한국보도사진상 nature(자연·생태) 부문에서 40여회 수상, 생태전문 사진기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전시작 역시 수상작이 대부분이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을 역임한 김 기자는 동신사진예술연구회에서 사진해 1985년부터 광주 맥 사진회에서 활동중이다. 김용택보도사진상,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13회 박경완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

김태규 사진기자 자연생태사진전, 14~21일 광주시청

시작은 황새였다. 오랜 시간 황새라고 생각했던 새가 백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면서 그는 새들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30년간 신문기자로 일해온 그의 열정은 생태사진으로 이어졌다. 새 서식지를 찾아 제주도에서 철원 DMZ까지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카메라 앵글에 새의 모습을 담았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피곤한 줄 몰랐고 차곡차곡 쌓인 사진은 소중한 자산이 됐다. 전남매일 김태규 사진기자가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자연생태사진전'을 개최한다.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기자는 30여년 동안 촬영한 새와 자연, 사람 사진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14일 오후 4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식이 조금씩 쌓이자 새들과의 동행은 더욱 즐거웠다. 참새, 멧비둘기, 따오기, 황새, 두루미, 장끼, 도요 등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 더불어 자연의 소중함과 위대함도 느꼈다. 그는 희귀한 새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갔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새들의 일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장시간 머물며 숨죽여 사진을 찍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새들의 생태 현장을 집요하게 지키면서 진기하고 장엄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내기도 했다. 그의 사진에는 다채로운 스토리가 있다. 제 몸보다 두배 이상 큰 빠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서로 부리를 부비며 애정을 표현하는 백로 부부, 송어를 사냥하는 물수리의 날쌔 모습,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어미가 새끼에게 주려는 먹이를 다른 새가 잡아채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은 인상적이다. 김 기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과 한국보도사진상 nature(자연·생태) 부문에서 40여회 수상, 생태전문 사진기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전시작 역시 수상작이 대부분이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을 역임한 김 기자는 동신사진예술연구회에서 사진해 1985년부터 광주 맥 사진회에서 활동중이다. 김용택보도사진상,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13회 박경완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 맛이 최고지'

'아트광주22' 관람객 3만2530명·판매액 22억

지난해보다 관람객 늘고 판매액은 소폭 하락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폐막한 제13회 광주 국제미술전람회(이하 '아트광주 22')는 지난해보다 관람객은 늘어난 반면 판매액은 소폭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트광주사무국에 따르면 4일 동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3만2530명이었다. 지난해에는 2만8530명이 전시장을 방문했고 2019년에는 2만

6000명이 다녀갔었다. 2020년 행사는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작품 판매액은 22억 3000만원이었다. 지난해 판매액 25억 7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로 최근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프리즈, 키아트 등 대형 행사를 제외하고는 경매시장 약세 등 전반적인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매출액은 18

억 5000만원, 2018년은 15억 8000만원이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2억 7000만원 규모로 작품을 매입했다. '예술문화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랑받는 미술시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외 86개 갤러리 부스와 11개 특별전 부스, 17개 기획전 부스로 운영됐으며 모두 4350여 점이 출품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 1·2·3관 모두를 활용해 전시 공간을 넓힌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마르크 샤갈,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 등 호반문화재단과 김빛과 등이 소장한 명작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미은 기자 mekim@